

KORDI ISSUE PAPER



2023-08

발행일 2023.12. /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 질적 연구¹⁾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부연구위원
(baejaeyoon@kordi.or.kr)

I. 연구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공공형 노인일 자리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3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노노케어, 경륜전수 활동, 공공시설 봉사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2명의 노인을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음. 연구 기간은 2023년 11월 6일부터 9일이었으며 각 그룹별 90분 가량 소요되었다. FIG의 주요 내용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동기 및 참여 경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와 변화', '공공형 노인일자리 욕구와 기대사항'등 이었다.

II. 연구 참여자의 특성

- 본 연구에 참여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총 22명이었다. 이들의 성별 구성은 남성 9명, 여성 13명이었다. 일반적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성비가 여성이 더 높은 것을 반영하여 여성 참여자를 더 많이 섭외하였다. 이들의 출생연도는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에 출생한 참여자가 7명, 1944년에서 1945년 사이에 출생한 참여자가 7명, 1946년에서 1947년에 출생한 참여자가 8명이었다. 이들의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거가 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4명이었고,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도 1명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참여자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중학교 졸업이 7명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각각 2명이었고, 무학도 1명 있었다.

1) 이 연구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험 연구」(배재윤 외, 2023)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 전원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 기준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조사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음으로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의 응답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횟수는 5회 이상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3~4회가 7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1~2회가 6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조사에 참여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전체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경률평수활동	
전 체		(22)	100.0	(8)	100.0	(9)	100.0	(5)	100.0
성별	남성	(9)	40.9	(3)	37.5	(4)	44.4	(2)	40.0
	여성	(13)	59.1	(5)	62.5	(5)	55.6	(3)	60.0
출생연도	1942년~1943년	(7)	31.8	(2)	25.0	(3)	33.3	(2)	40.0
	1944년~1945년	(7)	31.8	(3)	37.5	(3)	33.3	(1)	20.0
	1946년~1947년	(8)	36.4	(3)	37.5	(3)	33.3	(2)	40.0
가족관계	독거	(7)	31.8	(1)	12.5	(3)	33.3	(3)	60.0
	노인부부	(10)	45.5	(4)	50.0	(4)	44.4	(2)	40.0
	기혼자녀동거	(4)	18.2	(2)	25.0	(2)	22.2	(0)	0.0
	미혼자녀동거	(1)	4.5	(1)	12.5	(0)	0.0	(0)	0.0
교육수준	무학	(1)	4.5	(0)	0.0	(1)	11.1	(0)	0.0
	초졸	(10)	45.5	(4)	50.0	(5)	55.6	(1)	20.0
	중졸	(7)	31.8	(4)	50.0	(3)	33.3	(0)	0.0
	고졸	(2)	9.1	(0)	0.0	(0)	0.0	(2)	40.0
	전문대졸	(0)	0.0	(0)	0.0	(0)	0.0	(0)	0.0
	대졸 이상	(2)	9.1	(0)	0.0	(0)	0.0	(2)	40.0
기초연금 수급여부	수급	(22)	100.0	(8)	100.0	(9)	100.0	(5)	100.0
	비수급	(0)	0.0	(0)	0.0	(0)	0.0	(0)	0.0
공적연금 수급여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	(9)	40.9	(4)	50.0	(4)	44.4	(1)	20.0
	비수급	(13)	59.1	(4)	50.0	(5)	55.6	(4)	80.0
기초보장 수급여부	수급	(5)	22.7	(3)	37.5	(2)	22.2	(0)	0.0
	비수급	(17)	77.3	(5)	62.5	(7)	77.8	(5)	100.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1)	4.5	(0)	0.0	(1)	11.1	(0)	0.0
	좋음	(10)	45.5	(2)	25.0	(4)	44.4	(4)	80.0
	보통	(8)	36.4	(5)	62.5	(2)	22.2	(1)	20.0
	좋지 않음	(2)	9.1	(0)	0.0	(2)	22.2	(0)	0.0
	매우 좋지 않음	(1)	4.5	(1)	12.5	(0)	0.0	(0)	0.0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좋음	(0)	0.0	(0)	0.0	(0)	0.0	(0)	0.0
	좋음	(3)	13.6	(0)	0.0	(2)	22.2	(1)	20.0
	보통	(14)	63.6	(6)	75.0	(4)	44.4	(4)	80.0
	좋지 않음	(3)	13.6	(0)	0.0	(3)	33.3	(0)	0.0
	매우 좋지 않음	(2)	9.1	(2)	25.0	(0)	0.0	(0)	0.0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 횟수	1~2회	(6)	27.3	(2)	25.0	(3)	33.3	(1)	20.0
	3~4회	(7)	31.8	(2)	25.0	(5)	55.6	(0)	0.0
	5회 이상	(9)	40.9	(4)	50.0	(1)	11.1	(4)	80.0

Ⅲ.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

1.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동기 및 참여 경로

：“부담되지 않는 일자리”,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주는 노인일자리”

- 본 연구에 참여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노노케어와 공공시설 봉사에서 활동하는 노인은 만 65세 이전 자영자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경륜전수 활동 참여자는 회사와 같은 직장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기를 최대한 미루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유는 은퇴 이후 노년기 일을 구하는 게 어렵고 노인은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이에 영향을 받은 개인적 편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력은 자신의 주된 일자리와 무관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저는 퇴직하고 경비를 했어요. 경비 아파트 경비를 하다가 4~5년 하다가 73세가 정년인데 그걸 넘겨서 77세까지인가 경비 반장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하고 용역회사로 넘어가서 그 때 그만뒀거든요.

(송희명, 남, 80세, 공공시설봉사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참여자)

▶(퇴사 후) 2년 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가지고 미화원으로 들어가고 빌딩, 아파트 그런 미화반장 해갖고 소장까지 하다가 70대에 그만 뒀어요.

(정형민, 남, 80세, 경륜전수활동 1.3세대강사파견사업 참여자)

- 참여자들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과 연결된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신청했다는 이유가 일반적이었다. 경제적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참여노인이 기대하는 바로써 본 조사에 참여한 노인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이유를 가장 큰 지원 동기로 손꼽았다. 이외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신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운동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었다. 즉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제적 측면과 함께 운동의 측면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지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말하였다.

▶집에서 있으면 안 돼요.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경제상으로도 30만 원, 27만 원이라도 받을 게 좋고 나가서 건강 상태가 좋잖아요. 나가서 활동을 하니깐 그것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거죠.

(송희명, 남, 80세, 공공시설봉사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참여자)

▶허리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운동 삼아 같이 다니라고 그래갖고 [중력] 운동 삼아 소일거리를 찾은 거죠. (이경현, 남, 77세, 노노케어 연중노노케어행복나눔사업단 참여자 보호자)

- 경륜전수 활동 참여자의 경우, 일자리가 없어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기회를 얻기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말하였다. 이들은 노년기 무료한 삶에 대해 걱정했고 무위가 익숙해지는 노년의 삶을 경계하는 것이 건강하는 사는 법이라고 믿고 있었다. 결국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통해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 참여자 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상당수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진 큰 장점으로 지역사회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게끔 돕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집에만 있으면 요일 분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강의를 하니깐 그걸 알 수도 있고

(이구영, 남, 78세, 경륜전수활동 공익활동-경륜전수활동-OPAL선생님 참여자)

▶ 시간 보내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혼자 먹기보다는) 외식을 많이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선택했어요.

(정형민, 남, 80세, 경륜전수활동 1.3세대강사파견사업 참여자)

- 이처럼 참여자들은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고 높은 역량이 요구되지 않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복지관을 통해 알게 되거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이 어색한 노인의 경우 신문처럼 익숙한 인쇄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은 노인복지관과 동사무소처럼 노인에게 열린 공간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종합복지관 앞을 지나다 보니까 포스터에 노인 일자리 모집이라고 그거 보고 내가 거기 가게 됐죠. 복지관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하게 됐죠.

(김숙향, 여, 79세, 노노케어 행복돌봄활동 참여자)

▶ 복지관이라는 데를 다니다가 거기서 정보를 얻어갔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도근욱, 남, 76세, 공공시설봉사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참여자)

▶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모집 끝났고 자리가 없대요. 그럼 여기 말고 딴 데 어디 있느냐 하니까 종합복지관을 가르쳐줘서 찾아갔죠.

(박영이, 여, 77세, 공공시설봉사 꿈플래너 참여자)

▶ 매달 지역 까지 신문에 나와요. 생활 일자리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십시오. (중략) 동사무소 다니다가 구청 복지과에 가도 돼. 구청 복지과에 가면 정보를 딱 빼줘요.

(정형민, 남, 80세, 경륜전수활동 1.3세대강사파견사업 참여자)

- 연구 참여자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지원하여 참여하게 된 것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노년기 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보였고 이것이 경제적 보탬이 되는 행위라는 것에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년기 사회활동의 기회를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새롭게 기여하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부담되지 않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2.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와 변화

: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에 보람”, “작은 나를 크게 만들어주는 국가 일자리”

- 본 조사의 참여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이들에게 노인일자리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일자리를 소개해 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더불어 좋아지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참여 그 자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만큼 조사 참여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경륜전수 활동의 경우, 자신이 잘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너무 월급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니까 내 나이에 맞게 그냥 이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80세니까 이것도 감사하죠.

(박현희, 여, 78세, 공공시설봉사 학교교통안전지킴이엘로우지킴이 참여자)

▶게이트볼은 대기자가 30명씩 있어요. 또 기분 좋은 건 완전 초보를 갖다 기초를 완전 가르쳐서 게임에 들여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면 뭐 어디 치다 왔다고 어디 클럽에서 치다 왔는데 선생님한테 배우고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럴 때 기분이 좋고

(김시영, 여, 77세, 경륜전수활동 노노강사 참여자)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경제적 측면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이들에게 월 27만 원의 활동비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이것을 참여 전후의 변화로 손꼽았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꺼리는 노인들이 많기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활동비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병원비나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전술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기초연금과 함께 이들의 주된 소득원으로 언급되었다.

▶경제적으로 용돈도 생기고 일도 생기고 나한테 보탬이 되죠. 모든 것이.

(김숙향, 여, 79세, 노노케어 행복돌봄활동 참여자)

▶훨씬 낫죠. 기초연금 타지. 이거 타지. 생계유지가 돼요. 우리가 큰 걸 안 쓰고 병원에 안 가고 이러면 가족 형편에 그 정도면 쓸 수가 있어요. 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나 뭘 하면 적자죠.

(송희명, 남, 80세, 공공시설봉사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참여자)

▶훨씬 이득이죠. 일자리 후에 전에는 그런데 이거 내가 운동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꼭 필요해 일자리는.

(김시영, 여, 77세, 경륜전수활동 노노강사 참여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27만 원이 적은 것 같다고는 생각은 해도 보탬이 됐으니까 그런 거 저런 하는 데 보탬이 돼서 여유롭지만 만일 안 한다면 사실 그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있다가 없으면 우울하겠죠.

(박현희, 여, 78세, 공공시설봉사 학교교통안전지킴이엘로우지킴이 참여자)

-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들에게 있어 신체적 변화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참여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정해진 시간에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겼다. 이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는 것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특성상 무리한 활동을 지양하고 적절한 수준의 활동이 보장됨에 따라 건강상 도움이 되는 정도의 활동이라는 것에 안정감과 만족감을 나타냈다.

- ▶ 말하자면 누워 있던 사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활력소도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일단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경우도
(황주윤, 여, 79세, 노노케어 도시락배달사업 참여자)
- ▶ 일을 하니까 훨씬 좋지. 나가서 운동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 나가는 시간이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이경현, 남, 77세, 노노케어 연중노노케어행복나눔사업단 참여자)
- ▶ 노인일자리를 안하면 더 나빠질 수 있죠. 당연히 지금 그대로 가면 좋지. 지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근욱, 남, 76세, 공공시설봉사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참여자)
- ▶ 저는 그 일자리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움직여지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일로다가 내 몸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부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근욱, 남, 76세, 공공시설봉사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참여자)
- ▶ 건강도 좋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좋잖아요. (중략) 집에 가 있으면 건강 우리는 항상 걸어야 되는데 안 걸으니까 거리가 오면 걸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좋다고 봐요.
(송희명, 남, 80세, 공공시설봉사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참여자)

-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사회적 관계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참여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알게 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복지관 이용자, 사회복지사, 지역 주민, 지역 공무원 등과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었다.
-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정신건강 개선에 대해 주목하였다. 본 조사의 참여자들 역시 우울증(상) 개선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이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무기력이 감소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는 경험이 많았다. 이런 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노년기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개인을 사회와 끊임없이 연결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우울증 같은 게 혼자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지관에서 만나가지고도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일하는 집도 그 시간만 되면 우리를 기다리다 반갑게 맞아주니까 좋고 그것도 서로 어울려서 자기 살아온 생활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죠.
(김숙향, 여, 79세, 노노케어 행복돌봄활동 참여자)
- ▶ 일자리가 있어서 좋죠. 아침에 잠만 자고 나면 시간만 되면 복지관에 가서 일주일에 세 번 가잖아요. 거기 갔다 온 시간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제일로 좋아요. 딱 생각이 안 들어서.
(백민욱, 여, 81세, 노노케어 온누리봉사단 참여자)
- ▶ 노인일자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그런 것 때문에 아픈 분들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80 넘은 90 다 된 그런 분들하고 운동도 하면 오히려 저희보다 더 활발하세요.
(도근욱, 남, 76세, 공공시설봉사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참여자)

-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특성상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이 주로 이뤄진다. 그런 면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측면에서 노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근간이 되는 자원임에 틀림 없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역할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관심 증대를 적절히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세부적인 발전방안과도 맞물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사회도 생기죠.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지역사회가 지금 현재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되는데 강동구 하면 강동구에서 우리 현재 지역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맨날 나오는데 동네일보 강동일보 이런 거 보면서도 어느 지역은 이렇고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거를 많이 파악할 수가 있죠

(김숙향, 여, 79세, 노노케어 행복돌봄활동 참여자)

▶ 제 마음속으로도 더 공감을 하고 더 좋아졌고 제 자신도 좋아졌고 제가 하여튼 이거 일자리 한 뒤로는 더 모든 게 좋아졌죠. 친구는 뭐 저희 또래도 많이 가긴 갔는데 그리고 또 외부에서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참 좋은 점이 많아요.

(도근욱, 남, 76세, 공공시설봉사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참여자)

- 연구 참여자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내년에도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런 기회가 계속 보장될 수 있길 바랐다. 그러나 계속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다음 해 활동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참여에 만족감은 높은 편이었으나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마다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욕구에 상응하는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여자들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계속 참여하길 바라는 것은 활동의 난이도가 적정하다는 것도 주된 이유였다. 참여자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활동 난이도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다만 난이도는 유지하되 활동 시간을 늘려 활동비 역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딱 좋아요. 끝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황주윤, 여, 79세, 노노케어 도시락배달사업 참여자)

▶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도근욱, 남, 76세, 공공시설봉사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참여자)

-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활동비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현재 활동의 내용과 난이도에 있어서는 만족하지만 활동비 자체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없었다. 2024년부터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활동비가 29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이마저 부족한 것으로 여겼다. 이들은 시간당 최소 1만 원 이상은 책정되어야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 공공형 노인일자리 욕구와 기대사항

: “계속 하고 싶은 일”, “경제적 도움도 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의의”

- 참여자들은 공공형 노인일 자리를 통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낸다고 여겼다. 이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면 하지 못했을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개인적으로 무위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의미화하였다. 특히 여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공공형 노인일 자리는 이들의 시간을 유의미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주는 활동이었다.

▶그냥 일자리가 있다 하는 거 나가는 것만도 좋으니까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 한 달에 열흘이라도 가는 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내가 만지면 또 내가 또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지.

(박영이, 여, 77세, 공공시설봉사 꿈플래너 참여자)

▶경제적 도움, 어울림.

(김시영, 여, 77세, 경륜전수활동 노노강사 참여자)

- 공공형 노인일 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의 일 자리에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자신이 참여하는 사업단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고 가능한 동일 사업단에 계속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사업단의 일 자리를 선불리 권하거나 현재 사업단 참여를 중단하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자는 고령자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같은 특성상 기존 활동에 적응한 뒤부터는 새로운 사업단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고 기존 활동에 전념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계속 지금 하는 것이 좋아요.

(김숙향, 여, 79세, 노노케어 행복돌봄활동 참여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찾아보지 않았어요. 누군가 맞춤형으로 찾아주면 생각해 볼 용의는 있어요.

(이창근, 남, 81세, 노노케어 사회복지텔러 참여자)

- 참여자들은 공공형 노인일 자리의 활동 시간의 적정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들은 하루 3시간, 월 30시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더 늘려주길 원한다는 의견도 공존하였다. 더불어 노인일 자리 외 다른 일 자리도 갖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활동 시간의 적정성은 활동비 인상에 대한 욕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현재 활동 시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활동비의 부족으로 원인이 파악된다. 활동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도 충분하다는 의견 모두 활동비에 대한 부족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4년부터 공공형 노인일 자리의 활동비가 29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이 역시 적다고 여기는 참여자의 의견이 지배적일 것으로 짐작된다.

▶주 3일 근무가 좋아요. 쉬는 날도 있어야지

(황주윤, 여, 79세, 노노케어 도시락배달사업 참여자)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주면 좋죠.

(성유자, 여, 79세, 공공시설봉사 복지활동도우미 참여자)

- 위와 같이 활동 시간에 대한 이견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활동비 인상에 대한 목소리는 공통의 의견으로 모두 같이 적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최소 30만 원 이상의 활동비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는 시간당 1만 원 이상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었다.

▶ 돈 좀 올라가서 우리가 노인 양반들이 그래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또 활동화 돼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다 월급이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저도 50%까지는 생각도 않고 지금 현재 27만 원씩 받는 거 3만 원 올려서 30만 원만 만들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김숙향, 여, 79세, 노노케어 행복돌봄활동 참여자)

▶ 30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래도 한 번 나가면 일당이 만 원은 된다. 만 원짜리다. 몇 시간이지만 그런 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박현희, 여, 78세, 공공시설봉사 학교교통안전지킴이엘로우지킴이 참여자)

▶ 30시간에 35만 원 정도.

(박영이, 여, 77세, 공공시설봉사 꿈플래너 참여자)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있어 다른 유형의 노인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은 큰 호응은 없었다. 이들은 현재 참여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만족하는 경향이 크기에 사업단 변경조치 바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 전환하는 것은 선호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자신의 역량과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다른 노인일자리로의 전환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공공형보다 어려운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선호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발기준 역시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더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하여 애초에 진입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 힘들면 못하죠. 저희 같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또래에서 하면 몰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처지겠죠. 눈치 보이는 건 안 되죠.

(황주윤, 여, 79세, 노노케어 도시락배달사업 참여자)

- 이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로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편견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고 실제로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정책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정부에서 노인에게 주는 시혜적 복지로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않았다. 이들은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참여하는 노인들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 정정당당하게 내가 일하고 돈 받는 거예요 안 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주면 가서 달랄 수 없는 거잖아. 그게 내가 할 만큼 하고 내가 받은 만큼 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희선, 여, 78세, 노노케어 희망이음 참여자)

▶ 일을 한 만큼 해야지 돈을 받지. 그냥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유자, 여, 79세, 공공시설봉사 복지활동도우미 참여자)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만큼 활동비를 정당하게 받는 것으로 여겼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기여로 국가에서 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고 일에 대한 접근도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로서 다양한 의견이 혼재한 가운데 직접 경험하며 체험한 일로서 큰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함의 및 시사점

-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노인의 독립적인 삶과 자립을 돕는 일자리로서 의미가 있었다. 이들은 “80세 이후에도 더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신체적 역량과 근로 환경이 갖춰지면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보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참여자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소중한 일자리이자 사회적으로 기여가 기대되는 공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이 긍정적인 부분이 크에도 불구하고 활동비에 대한 불만족은 상당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부분의 조사 참여자가 활동비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활동비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현재 활동비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절대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활동 시간의 증감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대부분은 활동비에 대해 “최소 30만 원은 받고 싶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은 시간당 1만 원이라는 나름의 기준을 내세워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언급하였다. 이는 최근 상승하는 물가를 고려할 때 활동비 인상에 대한 욕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활동비가 29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이는 참여자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활동비 인상에 대한 요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서는 이들의 부정적 경험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사업에 탈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감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편 수요가 불충분하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수요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진행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경험하였으며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여겼다. 이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증명하고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지속되어야 할 근거가 있으며 앞으로도 확장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이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사업만의 차별적인 지향점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다른 유형의 노인일자리와 비교하여 절대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